

인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겨주시려

복속에서 복을 모르다는 말이 있다.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의 품속에서 쓰고살 걱정, 배울 걱정, 치료 받을 걱정 등을 모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공화국인민들, 마치 공기속에서 살면서 공기의 귀중함을 모르듯이 국가로부터 알고 받는 혜택보다 모르고 받는 혜택이 얼마나 더 크지 않았을까.

그 혜택 가운데는 공화국인민들이 마음껏 마시고 쓰는 맑은 물도 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유정한 물소리가 들려오는 이곳, 언젠가 재평균에 위치한 어느 샘물공급소를 찾았던 기자에게 공급소의 한 봉사자가 한 말이 떠오른다.

《집집마다 맑은 수도물이 흘러드는데 이렇게 샘물까지 공급받으니 물에서 물을 팔라마시는 셈이지요.》

물에서 물을 팔라마시는 인민, 이 땅에 흐르는 너무나 평범하고 레사로운 생활의 한 풍경에서 이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가슴뿌듯이 느낄 수 있다.

물!

물이 없으면 사람은 한시도 살 수 없다. 사람의 몸의 절반이상은 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이 행성을 둘러보면 심각한 먹는물부족으로 고통과 불행의 나락에서 헤매이는 이주 헤아릴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10명당 1명이상이 먹는물부족을 느끼고 36억명이 년중 한달 물고생을 하고있으며 오염된 물에 의해 발생하는 각종 질병으로 해마다 수백만명이 목숨을 잃고있다고 한다.

물자원부족은 나라들사이의 대립과 긴장을 격화시키고 국제적인 분쟁으로까지 번져지게 하고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어딜 가나 맑은 물이 차넘친다.

국가부담으로 각 지역의 수원지, 배수지들에서 위생학적으로 처리되고 소독을 거친 깨끗한 물이 집집의 수도마다 쏟아져나오지만 사람들은 물값이라는 말을 모르며 산다.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 샘물공급소들이 생겨나 사람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아날산생물, 신덕샘물, 천수동샘물, 마시령샘물 등 미처 다 꼽지 못할 장수샘물들이 인민들에게 공급되고있으며 광물질함량이 많으면서도 그 맛이 서로 다른 강서약수, 옥류약수, 옥호동약수를 비롯하여 수많은 약수들이 인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고있다.

이러 그뿐만이아.

전통적인 금강약물요생산에 첨단음료수처리기술의 하나인 소분자수제조기술과 자화기술 등을 도입하여 물맛과 효능을 더욱 높인 새로운 금강약물요생들이 매 대에 넘쳐나 건강과 장수를 노래하는 인민의 기쁨 나날이 커가고있으니 이는 자연이 선사한 혜택인가, 세월이 가져다준 행운인가.

예로부터 산이 좋고 물이 맑아 삼천리금강산이라고 불리워온 조선이다.

허나 나라없던 수난의 그 세월 왜놈의 학정에 물고생까지 겹쳐들이 회계 물지계를 지고나오고, 한모금의 맑은 물이 없어 병들고 쓰러져가던것이 이 나라 백성들의 눈물겨운 정상이었거니 과연 언제부터였던가, 인민이 물고생을 모르면 살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시신 그때부터였다.

해방된 조국 땅에서 인민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였건만

자기 고장을 찾아주시신 그이께 마라리물밖에 흘릴수 없어 송구스러워하는 농민에게 입금을 인민이고 자신은 신하라고 하시던 우리 수령님.

그때부터였다. 인민이 주인된 세상에 물고생, 물걱정이라는 말을 영원히 없애버리시려 아버지수령님께서 손수 그이주신 평남관개 5000리의 물결선을 따라 영풍호의 생명수가 출렁이며 흘러오며 대대로 풀지 못했던 물에 대한 소원이 풀리던 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를 목청껏 부르며 행복에 웃고 그마음에 울던 열두삼천리별사사람들이다.

물소 동통산에 오르시여 대공음도시의 휘황한 전경을 펼쳐주시던 그날 성천강물을 끌어올려 합동시인들의 음료를 전부다 수도로 보장하여야 하겠다고 하시며 먹는물문제부터 먼저 대책해주시고, 흐르는 물까지 대인민을 위해 다 찾아내고 인대를 위해 복부하도록 하여주시는 수령님의 그 웅심깊은 사랑속에 이르는 곳마다에 약수터가 생겨나고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료양소들이 일떠섰다.

인민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은파호, 서호호, 미림강물, 봉화강물을 비롯한 대인공적수지건 설의 력사에 이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거창한 령도의 손길에 떠받들려 20리 날바다 우에 거연히 솟아오른 세해강물, 이때부터 수수천년 바다로 흐르던 대동강이 대인공호수로 전변되어 대동강하류류역의 음료수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어찌 다 헤아릴수 있랴.

경제적으로 아무리 큰 리익이 나는 일이라 해도 인민들에게 해를 주는 일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에 의하여 새 체편선건설계획이 취소되고 성천강에는 언제나 맑은 물이 출렁이게 되었고 황금으로 재판을 쌓는한이 있더라도 저수지 공사를 꼭 하여야 한다는 그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신계곡산지가 억년 마를줄 모르는 신곡저수지가 생겨나 집집의 수도마다 사랑의 생명수가 넘쳐흘렀다.

영영 잃을번하였던 유명한 강서약수가 세상에 두번다시 태어나게 된 전설같은 이야기, 오수덕의 얼마 안되는 사람들의 먹는물 보장을 위해 800m나 되는 높은

덕지대에 국가의 많은 자금과 자재가 투자된 이야기...

어디서나 볼수 있는 레사로운 일이었다. 그것은 오직 인민이 모토였던 이 땅, 이 하늘 아래서만 펼쳐질수 있는 인민사랑의 감동깊은 화폭이다.

오늘도 인민사랑의 물줄기는 줄기차게 흐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하늘처럼 떠받들어오신 인민들이 무병장수의 기쁨속에 사회주의만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 끊임없는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들입니다.

통양산샘물공장을 찾으시여서는 인민들에게 샘물을 공급하는 문제는 단순히 인민들에게 먹는물을 보장해주는 문제가 아니라 인민성에 관한 문제라고 하시며 샘물관리법도 채택하도록 하고 강서약수공장에 가지어서는 강서약수공장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것은 사회의 모든 재부가 청두처럼 인민들의 복리복진에 돌려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나라에 풍부한 약수와 온천자원을 잘 리용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인민들 한사람한사람의 생명은 설의 력사에 이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거창한 령도의 손길에 떠받들려 20리 날바다 우에 거연히 솟아오른 세해강물, 이때부터 수수천년 바다로 흐르던 대동강이 대인공호수로 전변되어 대동강하류류역의 음료수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어찌 다 헤아릴수 있랴.

경제적으로 아무리 큰 리익이 나는 일이라 해도 인민들에게 해를 주는 일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에 의하여 새 체편선건설계획이 취소되고 성천강에는 언제나 맑은 물이 출렁이게 되었고 황금으로 재판을 쌓는한이 있더라도 저수지 공사를 꼭 하여야 한다는 그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신계곡산지가 억년 마를줄 모르는 신곡저수지가 생겨나 집집의 수도마다 사랑의 생명수가 넘쳐흘렀다.

영영 잃을번하였던 유명한 강서약수가 세상에 두번다시 태어나게 된 전설같은 이야기, 오수덕의 얼마 안되는 사람들의 먹는물 보장을 위해 800m나 되는 높은

민족음식에 어린 다심한 손길 (2)

1년중 가장 덥다고 하는 삼복철이다.

벽약별이 지글지글 내려조이는 이 시기 음식으로는 시원한 팽이버섯이 제격이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인기를 끄는것은 역시 단고기국을 비롯한 단고기요리들이다. 그래서 조상대대로 《이열치열》이라 일러오지 않았는가.

우리 민족의 생활습속에는 삼복철에 땀을 흘릴 홀리며 뜨끈한 단고기국을 먹는 풍습이 있다.

우리 나라 옛 문헌들에는 단고기와 관련한 여러가지 자료들이 약초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개되어있다. 옛 기록에는 《단고기는 성질이 덥고 독이 없다. 허기를 편안하게 하고 혈액을 조절하며 비장과 위를 튼튼하게 하고 풍수를 맑게 하며 머리, 무릎을 덥게 하여 아픔을 멎게 하고 기력을 증진시켜 약기를 돕는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이런데로부터 민간에서는 삼복철에는 단고기를 먹어야 장수한다고 하였고 단고기국을 보신 땅이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오유칠 단고기장은 은 발등에 떨어져도 약이 된다.》는 속담도 나오게 되었다.

이렇듯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 삼복철 단고기국을 먹는 풍습은 절세위인들의 각별한 관심과 보살핌에 의하여 민족의 향취를 더해줌과 함께 꽃피어오르게 되었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마음 써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는 몸소 단고기국이라는 이름도 친히 지어주시고 여러가지 단고기요리를 만들데 대한 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는 통일거리의 명당자리에 평양 단고기집을 건설하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고 인민들에 대한 봉사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오늘 단고기요리는 삼복철 누구나 찾는 민

족친통음식으로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언제인가 단고기요리방법을 소개하는 어느한 편집물을 주의깊게 보아주시는 원수님께서 단고기국을 만드는 방법은 하나의 음식문화이라고, 음식문화를 널리 소개하려면 요리방법에 대한 소개편집물을 온전한 제법과 상식을 놓고 정확히 만들어 내보내야 음식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요리방법에 대한 소개편집물을 잘 만들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주체104(2015)년 7월 전국단고기요리경연이 진행되던 그때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해마다 전국단고기요리경연을 조직하는것을 전통화하도록 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후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경연때마다 지방의 단고기요리수준이 평양시보다 떨어진다는것을 아시고 지방이라고 하여 단고기요리기술이 평양시보다 뒤떨어져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하시면서 도 소제자들에게 단고기집을 잘 꾸리고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요리기술을 발전시켜 주민들에게 봉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전국단고기요리경연을 소개할 때 단고기의 유래와 특징, 요리방법을 잘 알려주도록 할데 대하여 일일이 가르치시신분, 전국단고기요리경연에서 우수하게 평가된 단고기요리방법을 DVD때도 체편집물로 만들어 보급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신분도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하기에 해마다 특색있게 진행되는 전국단고기요리경연이 우리 민족의 전통음식인 단고기요리를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인민들

의 식생활을 보다 윤택하고 다채롭게 하는데 이바지하는 의의 깊은 계기로 될수 있었던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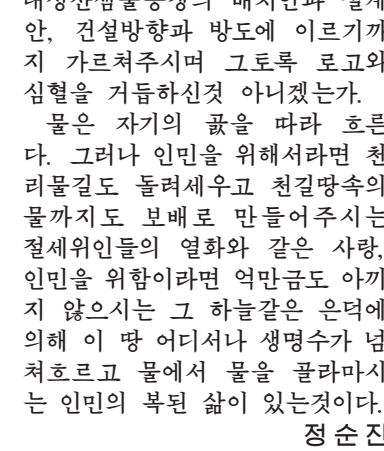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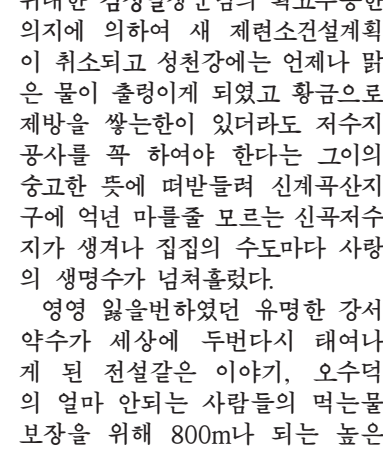
평양시안의 단고기국을 전문으로 봉사하는 식당들사이의 단고기요리경연을 조직하도록 하신 사실, 평양시에 단고기요리 전문발전시키도록 하여주시는 은정어린 조치, 평양단고기집에서 만든 단고기요리의 맛도 몸소 보아주시고 가공방법도 가르쳐주시던 다심한 손길...

이렇듯 뜨거운 인민사랑과 숭고한 민족애를 지니신 절세위인의 세심한 보살핌속에 단고기요리들은 조선민족의 명음식으로 만사람의 찬탄을 받고있다.

단고기국을 비롯한 단고기요리들을 맛본 수많은 해외동포들, 외국인들은 《평양의 단고기요리는 조선민족음식의 전형이다.》, 《맛이 신기하다.》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엄지손가락을 쳐들고 최고라고 평가하였다.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한 손길이 있어 공화국인민들은 민족음식들을 통하여 나날이 질아가는 민족의 향취를 한껏 느끼며 커다란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에 넘쳐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애국의 땅과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철진



- 홍수경 조선장애자체육협회 부원과 나눈 대담 -

자: 조선장애자체육협회에서 장애자체육선수들의 꿈과 재능을 꽃피우기 위한 사업을 잘 하고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홍수경: 응당 해야 할 일을 했을뿐이다. 장애자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따뜻이 보살피며 자그마한 생활의 짝을 찾아 꽃피워주는것은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다.

우리 나라에서 장애자보호사업은 해방후부터 진행되어왔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주체35(1946)년 6월에 발표하신 로동법령에서 로동으로 인한 불구자나 직업으로 생긴 병에 의하여 근무할수 없는 사람들의 생활조건 보장대책을 제시하시여 우리 나라 장애자보호사업의 발단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따뜻한 사랑속에서 주체100(2011)년 8월에 창립된 조선장애자체육협회는 체육활동에 대한 장애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그들의 회합을 실현시켜주며 장애자체육사업에 대한 사회적인식과 관심을 높여 장애자들에게 충분한 체육활동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신체상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장애자들이 체육을 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것이 아



니다.

하지만 협회의 일꾼들과 감독들은 따뜻한 사랑과 정으로 장애자들의 재능의 싹을 찾아내어 소중히 가꾸어주고 있다.

어렸을 때 뜻밖의 일로 두 팔의 많은 부분을 잃은 김영록선수만 놓고보아도 그가 오늘과 같이 재능있는 탁구선수가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협회의 일꾼들은 그에게 삶의 회의를 안겨주기 위해 민길을 찾아가 공화국의 장애자보호정책에 대해 알려주며 전문훈련지도를 받고 또 꾸준히 노력한다면 국제경기에도 진출할수 있다고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전주현탁구선수의 가슴속에도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고마움이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불편한 자기를 손잡아 훈련장에서 이끌어주고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애쓰며 따뜻이 돌봐주고 지혜와 힘을 합쳐준 협회의 일꾼, 감독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손길에 떠받들려 생의 활력을 되찾을수 있었다.

이렇듯 우리 협회에는 탁구와 바드민턴, 수영, 투상, 활쏘기, 스키와 같은 종목을 하는 장애자체육선수들이 많다. 마음속고충과 아픔을 겪는 사람일수록 더 가까이 다가가 따뜻이 위해주는 사랑과 정은 장애자체육선수들이 회

담을 꽃피울수 있게 하는 자양분으로 되고있다.

자: 낱아준 부모도 미처 알지 못했고 지어 본인조차 포기할뻔했던 꿈과 희망의 나래를 활짝 꽃피워주는 그 마음 풀이 있어 장애자체육선수들이 국제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홍수경: 옳은 말이다. 장애자들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들의 사회적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하는게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는 국가의 혜택속에 장애자들이 일반사람들과 똑같이 다양한 종류의 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으며 국제경기들에도 적극 출전하고있다.

여러 국제경기에 참가한 우리 장애자체육선수들의 경기모습을 본 외국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조선선수들이 높은 기술과 정신력을 보여주었다. 신진선수들이지만 인내성이 매우 강하다. 이런 선수들을 키워낸 조선에 꼭 한번 가보고싶다며 엄지손가락을 내보였다.

김영록선수가 장애부분에 탁구채를 고정하고 국제경기에 참가하여 우승의 영예를 지니었을 때 그의 자신만만한 모습을 본 어느 나라의 감독은 김영록선수의 부모가 어떤 직위에 있는가고 우정 쌓아와 물어보기까지 하였다. 두손이 없는 몸으로 세계적인 경기대회에 참가하였으니 많



- 판이한 두 현실 -

자: 조선장애자체육협회에서 장애자체육선수들의 꿈과 재능을 꽃피우기 위한 사업을 잘 하고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홍수경: 응당 해야 할 일을 했을뿐이다. 장애자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따뜻이 보살피며 자그마한 생활의 짝을 찾아 꽃피워주는것은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다.

우리 나라에서 장애자보호사업은 해방후부터 진행되어왔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주체35(1946)년 6월에 발표하신 로동법령에서 로동으로 인한 불구자나 직업으로 생긴 병에 의하여 근무할수 없는 사람들의 생활조건 보장대책을 제시하시여 우리 나라 장애자보호사업의 발단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따뜻한 사랑속에서 주체100(2011)년 8월에 창립된 조선장애자체육협회는 체육활동에 대한 장애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그들의 회합을 실현시켜주며 장애자체육사업에 대한 사회적인식과 관심을 높여 장애자들에게 충분한 체육활동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신체상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장애자들이 체육을 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것이 아



니다.

하지만 협회의 일꾼들과 감독들은 따뜻한 사랑과 정으로 장애자들의 재능의 싹을 찾아내어 소중히 가꾸어주고 있다.

어렸을 때 뜻밖의 일로 두 팔의 많은 부분을 잃은 김영록선수만 놓고보아도 그가 오늘과 같이 재능있는 탁구선수가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협회의 일꾼들은 그에게 삶의 회의를 안겨주기 위해 민길을 찾아가 공화국의 장애자보호정책에 대해 알려주며 전문훈련지도를 받고 또 꾸준히 노력한다면 국제경기에도 진출할수 있다고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전주현탁구선수의 가슴속에도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고마움이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불편한 자기를 손잡아 훈련장에서 이끌어주고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애쓰며 따뜻이 돌봐주고 지혜와 힘을 합쳐준 협회의 일꾼, 감독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손길에 떠받들려 생의 활력을 되찾을수 있었다.

이렇듯 우리 협회에는 탁구와 바드민턴, 수영, 투상, 활쏘기, 스키와 같은 종목을 하는 장애자체육선수들이 많다. 마음속고충과 아픔을 겪는 사람일수록 더 가까이 다가가 따뜻이 위해주는 사랑과 정은 장애자체육선수들이 회

담을 꽃피울수 있게 하는 자양분으로 되고있다.

자: 낱아준 부모도 미처 알지 못했고 지어 본인조차 포기할뻔했던 꿈과 희망의 나래를 활짝 꽃피워주는 그 마음 풀이 있어 장애자체육선수들이 국제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홍수경: 옳은 말이다. 장애자들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들의 사회적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하는게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는 국가의 혜택속에 장애자들이 일반사람들과 똑같이 다양한 종류의 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으며 국제경기들에도 적극 출전하고있다.

여러 국제경기에 참가한 우리 장애자체육선수들의 경기모습을 본 외국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조선선수들이 높은 기술과 정신력을 보여주었다. 신진선수들이지만 인내성이 매우 강하다. 이런 선수들을 키워낸 조선에 꼭 한번 가보고싶다며 엄지손가락을 내보였다.

김영록선수가 장애부분에 탁구채를 고정하고 국제경기에 참가하여 우승의 영예를 지니었을 때 그의 자신만만한 모습을 본 어느 나라의 감독은 김영록선수의 부모가 어떤 직위에 있는가고 우정 쌓아와 물어보기까지 하였다. 두손이 없는 몸으로 세계적인 경기대회에 참가하였으니 많



자: 조선장애자체육협회에서 장애자체육선수들의 꿈과 재능을 꽃피우기 위한 사업을 잘 하고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홍수경: 응당 해야 할 일을 했을뿐이다. 장애자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따뜻이 보살피며 자그마한 생활의 짝을 찾아 꽃피워주는것은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다.

우리 나라에서 장애자보호사업은 해방후부터 진행되어왔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주체35(1946)년 6월에 발표하신 로동법령에서 로동으로 인한 불구자나 직업으로 생긴 병에 의하여 근무할수 없는 사람들의 생활조건 보장대책을 제시하시여 우리 나라 장애자보호사업의 발단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따뜻한 사랑속에서 주체100(2011)년 8월에 창립된 조선장애자체육협회는 체육활동에 대한 장애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그들의 회합을 실현시켜주며 장애자체육사업에 대한 사회적인식과 관심을 높여 장애자들에게 충분한 체육활동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신체상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장애자들이 체육을 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것이 아

니다.

하지만 협회의 일꾼들과 감독들은 따뜻한 사랑과 정으로 장애자들의 재능의 싹을 찾아내어 소중히 가꾸어주고 있다.

어렸을 때 뜻밖의 일로 두 팔의 많은 부분을 잃은 김영록선수만 놓고보아도 그가 오늘과 같이 재능있는 탁구선수가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협회의 일꾼들은 그에게 삶의 회의를 안겨주기 위해 민길을 찾아가 공화국의 장애자보호정책에 대해 알려주며 전문훈련지도를 받고 또 꾸준히 노력한다면 국제경기에도 진출할수 있다고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전주현탁구선수의 가슴속에도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고마움이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불편한 자기를 손잡아 훈련장에서 이끌어주고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애쓰며 따뜻이 돌봐주고 지혜와 힘을 합쳐준 협회의 일꾼, 감독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손길에 떠받들려 생의 활력을 되찾을수 있었다.

이렇듯 우리 협회에는 탁구와 바드민턴, 수영, 투상, 활쏘기, 스키와 같은 종목을 하는 장애자체육선수들이 많다. 마음속고충과 아픔을 겪는 사람일수록 더 가까이 다가가 따뜻이 위해주는 사랑과 정은 장애자체육선수들이 회



자: 조선장애자체육협회에서 장애자체육선수들의 꿈과 재능을 꽃피우기 위한 사업을 잘 하고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홍수경: 응당 해야 할 일을 했을뿐이다. 장애자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따뜻이 보살피며 자그마한 생활의 짝을 찾아 꽃피워주는것은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다.

우리 나라에서 장애자보호사업은 해방후부터 진행되어왔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주체35(1946)년 6월에 발표하신 로동법령에서 로동으로 인한 불구자나 직업으로 생긴 병에 의하여 근무할수 없는 사람들의 생활조건 보장대책을 제시하시여 우리 나라 장애자보호사업의 발단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따뜻한 사랑속에서 주체100(2011)년 8월에 창립된 조선장애자체육협회는 체육활동에 대한 장애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그들의 회합을 실현시켜주며 장애자체육사업에 대한 사회적인식과 관심을 높여 장애자들에게 충분한 체육활동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신체상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장애자들이 체육을 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것이 아

니다.

하지만 협회의 일꾼들과 감독들은 따뜻한 사랑과 정으로 장애자들의 재능의 싹을 찾아내어 소중히 가꾸어주고 있다.

어렸을 때 뜻밖의 일로 두 팔의 많은 부분을 잃은 김영록선수만 놓고보아도 그가 오늘과 같이 재능있는 탁구선수가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협회의 일꾼들은 그에게 삶의 회의를 안겨주기 위해 민길을 찾아가 공화국의 장애자보호정책에 대해 알려주며 전문훈련지도를 받고 또 꾸준히 노력한다면 국제경기에도 진출할수 있다고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전주현탁구선수의 가슴속에도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고마움이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불편한 자기를 손잡아 훈련장에서 이끌어주고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애쓰며 따뜻이 돌봐주고 지혜와 힘을 합쳐준 협회의 일꾼, 감독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손길에 떠받들려 생의 활력을 되찾을수 있었다.

이렇듯 우리 협회에는 탁구와 바드민턴, 수영, 투상, 활쏘기, 스키와 같은 종목을 하는 장애자체육선수들이 많다. 마음속고충과 아픔을 겪는 사람일수록 더 가까이 다가가 따뜻이 위해주는 사랑과 정은 장애자체육선수들이 회



자: 조선장애자체육협회에서 장애자체육선수들의 꿈과 재능을 꽃피우기 위한 사업을 잘 하고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홍수경: 응당 해야 할 일을 했을뿐이다. 장애자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따뜻이 보살피며 자그마한 생활의 짝을 찾아 꽃피워주는것은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다.

우리 나라에서 장애자보호사업은 해방후부터 진행되어왔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주체35(1946)년 6월에 발표하신 로동법령에서 로동으로 인한 불구자나 직업으로 생긴 병에 의하여 근무할수 없는 사람들의 생활조건 보장대책을 제시하시여 우리 나라 장애자보호사업의 발단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따뜻한 사랑속에서 주체100(2011)년 8월에 창립된 조선장애자체육협회는 체육활동에 대한 장애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그들의 회합을 실현시켜주며 장애자체육사업에 대한 사회적인식과 관심을 높여 장애자들에게 충분한 체육활동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신체상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장애자들이 체육을 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것이 아

니다.

하지만 협회의 일꾼들과 감독들은 따뜻한 사랑과 정으로 장애자들의 재능의 싹을 찾아내어 소중히 가꾸어주고 있다.

어렸을 때 뜻밖의 일로 두 팔의 많은 부분을 잃은 김영록선수만 놓고보아도 그가 오늘과 같이 재능있는 탁구선수가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협회의 일꾼들은 그에게 삶의 회의를 안겨주기 위해 민길을 찾아가 공화국의 장애자보호정책에 대해 알려주며 전문훈련지도를 받고 또 꾸준히 노력한다면 국제경기에도 진출할수 있다고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전주현탁구선수의 가슴속에도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고마움이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불편한 자기를 손잡아 훈련장에서 이끌어주고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애쓰며 따뜻이 돌봐주고 지혜와 힘을 합쳐준 협회의 일꾼, 감독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손길에 떠받들려 생의 활력을 되찾을수 있었다.

이렇듯 우리 협회에는 탁구와 바드민턴, 수영, 투상, 활쏘기, 스키와 같은 종목을 하는 장애자체육선수들이 많다. 마음속고충과 아픔을 겪는 사람일수록 더 가까이 다가가 따뜻이 위해주는 사랑과 정은 장애자체육선수들이 회



여성존중, 여성중시의 회원에서 행복을 꽃피워가는 공화국의 여성들